

덧없는 육신은 저 하늘에 돌려주리라

《천장》 펴낸 박하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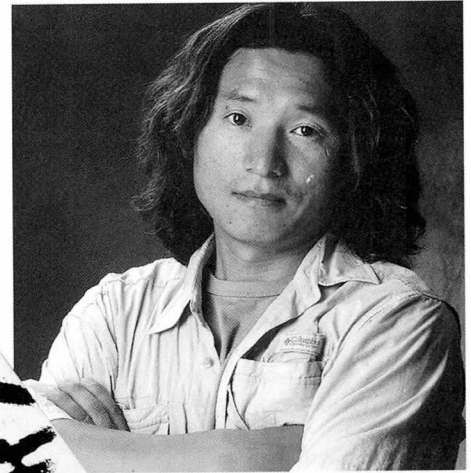
처음엔 킬링필드인 줄 알았다. 사진집을 펼치자 악취가 훑 끼쳐온다. 사람이 사람을 도륙하고, 독수리가 눈알까지 파먹고 난 시체는 뼈와 가죽과 무서운 표정만 남아 있다.

사진작가 박하선씨(49)의 두번째 사진집 《천장》(커뮤니케이션 와우)에는 이렇게 모골이 송연해지는 장면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티베트의 전통 장례 '천장' (Sky Burial)을 치르는 과정일 뿐이다. 흔히 우리가 '조장' (鳥葬)이라고 알고 있는 것 말이다. 티베트 사람들은 영혼이 떠난 육신에 대해 애착이 없다. 그래서 죽으면 몸마저 보시한다. 오직 죽은 생물만 먹는 영험한 새 '벌쳐' (Vulture, 티베트 지방에 서식하는 독수리)가 인간의 육신을 먹고 그 영혼을 하늘로 자유롭게 풀어준다고 믿고 있다.

"좀 놀랐죠? 컬러사진으로 보면 더 충격적이라 일부러 흑백사진만 실었어요. 티베트의 전통풍습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편협한 문명의 눈에는 잔혹한 행위로 비치겠지만, 티베트 사람들은 오히려 천장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은 '독수리도 안 먹는다' 해서 그냥 수장(水漿)으로 치르거든요."

1997년 티베트 라롱(La Rong) 마을을 처음 방문한 박씨는 가장 높은 라마인 '구비감포'를 찾아갔다. 천장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하였다. 그런데 "사람 죽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 뭐가 그리 궁금해서 이곳까지 왔는가?" "그대라면 그대 어머니 시신을 남들의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겠는가" 하는 매서운 질문이 날아들었다. 박씨는 무릎을 꿇고 침묵했고 어렵사리 허락이 떨어졌다. 역겨운 냄새로 찌든 텅 빈 천장터에서, '사람이 죽길 바라다니' 하는 참혹한 심정으로 기다리길 나흘째. 들뜬 한가운데서 무엇인가가 움직였다. 가쁜 숨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보니 어스름 엄청난 크기의 독수리들이 시신 곁으로 몰려와 있었다.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살점이 카메라에 튀고, 유가족들은 잡아먹을 듯 쳐다봤지만, 조급한 마음에 우선 보이는 대로



박하선씨

커뮤니케이션 와우/A4변형/120면/27,000원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대 얻어맞기도 했죠."

천장사는 독수리들이 먹기 좋게 시신에 칼집을 내고 썰며, 나중에는 뼈와 살을 반죽해서 남김없이 먹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은 라마승이다. 20대 초반의 건장한 사내가 임명되며, 한번 맡으면 늙어서 못할 때까지 이 일을 한다. 명예로운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유가족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죽은 자가 내생에서 더 나은 생으로 윤회한다고 믿거든요."

젊은 시절 7년 동안 항해사로 배를 탄 적이 있는 박씨는 그 후부터 떠돌길 좋아해 주로 중앙아시아 오지들을 돌아다니며 소수민족의 특이한 풍습을 사진으로 찍어 왔다.

"그저 이런 게 있다고 보여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 사람들에게 죄짓는 것밖에 안되죠. 사람들이 이 사진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고정관념을 탈피해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소망이 없었으면 저도 굳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강성민기자

어 · 둠 · 을 · 밝 · 히 · 는 · 힘 계명대학교출판부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Tel. 053-580-6231~33 Fax. 053-583-5213 <http://home.kmu.ac.kr/~press> 이메일: press@kmu.ac.kr



계명대학교출판부에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계명대학교출판부 도서 구입처: 교보, 영등포, 영풍, 을지, 종로, 진솔, 청운(대구), 학원(대구), 동보(부산), 총장(광주), 대훈(대전)

그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퍼낸 김현아씨

김현아씨(35, 나와 우리 공동대표)가 베트남전에 대해 관심 기울이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1997년에 시민단체 '나와 우리'를 결성하고 사업주제를 탐색하던 중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함께 한 '피스보트'에 참가했고 거기서 베트남 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을 알게 됐다.

그는 베트남전의 진실을 밝혀 한국인들이 저지른 과오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을 목표로 베트남을 답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또 무수한 자료를 열람하는 데 꼬박 3년을 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깨달음을 기록한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책갈피)을 펴냈다.

“베트남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살 속에 박혀 그대로 있는 것 같아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제가 알지 못한 삶의 지평을 보여줬고, 저는 그 증언을 기록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베트남을 다니면서 내내 아팠다고 한다. 또 책을 쓰는 동안 “내가 만난 할머니의 눈물만큼만 옮겨 쓰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책은 베트남 전쟁의 원인과 경과를 짚으며, 베트남 사람들과 참전군인의 이야기를 교차한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참화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과 전쟁 때문에 한평생 갈등에서 헤어날 수 없는 참전군인들의 고백으로 재구성해, 3천명이 넘는 양민이 학살당했고 우리는 명백한 가해자라는 사실을 증언한다. 한꺼번에 자식 여덟을 잃은 할머니, 사람 죽인 대가로 자식을 키울 수 없으며 원호대상자가 되길 거부한 참전군인, 고엽제의 폐해를 자식에게까지 물려줘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는 그 속에서 가해자가 됐는지, ‘그래도 지속되는 삶’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남겨졌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베트남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만큼 참전군인에 대한 애정을 가



김현아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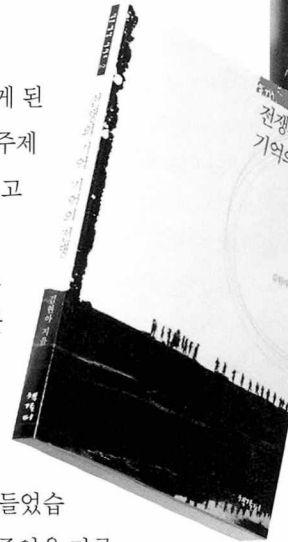
책갈피/A5신/304면/13,000원

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젊은 날 경험한 폭력이 전생애를 지배한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으니까요.”

잘 알게 되면 사랑하게 마련이다. 무도한 현실 속에 스러진 한 사람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베트남전은 너무도 복잡해 개인의 불행을 같이 슬퍼하는 데서 그치기엔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고 한다.

“베트남 사람들에게겐 위안부 할머니들과 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무치는 과거를 떠올리며 증언을 그치지 않는 용기는 바로 그런 바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소박한 위령비에 억울하게 죽은 가족의 이름을 새기고 싶어할 뿐입니다.”

그는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낸 베트남인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 연대”를 보낸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징표로 ‘나눔의 집’과 같은 역할을 할 ‘평화역사관’을 베트남에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차정신기자



어 · 둠 · 울 · 밝 · 히 · 는 · 힘 계명대학교출판부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Tel. 053-580-6231 ~ 33 Fax. 053-583-5213 http://home.kmu.ac.kr/~press 이메일: press@kmu.ac.kr

악곡분석을 통한 음악이론사 1, 2 J. Baur 저/박미경 역/4·6배판/반양장/306, 362쪽/각 16,000원

음악대학생이 이론 필수과목을 이수한 후 서양음악의 어떠한 작품을 대하더라도 그 기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된 본서는, 기본적 음악이론 기술의 중요성과 음악적 조망을 넓히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완전한 음악예를 수록한다는 것과 이론적 자료를 시대적으로 배열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이론과 음악을 분리하여 배우는 단점을 극복하고 서양음악의 총체적 이해를 돕도록 구성되었다.



계명대학교출판부 도서 구입처: 교보, 영등포, 영풍, 을지, 종로, 진솔, 청운(대구), 학원(대구), 동보(부산), 총장(광주), 대운(대전)